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홍보매체로 거듭나기를



서경섭
〈S-Oil 업무팀 대리〉

유용한 정보와 반가운 소식을 담고 있어 항상 새로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석유협회보'가 '약관(弱冠)'의 나이인 창간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그 시간의 깊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혈기방장하고 의욕이 넘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활기찬 청년의 때, 그 힘이 느껴지며 주변 상황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또한 기대됩니다.

우선 석유협회보 창간 20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석유협회보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석유협회 관계자 및 많은 필자 여러분들

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소용돌이 치듯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석유업계가 도전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석유협회보가 일조를 해 왔다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석유협회보를 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유협회보는 석유업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 준 고마운 참고서였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석유업계의 복잡하고 생소한 현안들에 대한 실무자들의 논리적인 정리와 예리한 분석은 석유산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한 각종 전

망 및 예측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둘째, 석유협회보는 석유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알게 해 준 소식지였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짧은 소식들에서부터 석유업계를 둘러 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소식들까지, 석유협회보를 통해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들에 대한 소식은 정보 취득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회원사간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동인(動因)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석유협회보는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는 자료실이었습니다. 국내·외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각종 가격자료, 수급 자료 등 다양한 석유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석유협회보의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석유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석유 협회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석유업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 요소들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협회보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이전 석유협회보는 석유업계의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업계 내부의 각종 현안과 정부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프로그램이 진행된 최근 몇 년간 석유업계에는 정유사들과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생겨났으며, 석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로 언론, 국회, 각종 NGO에 의한 비판 및 정책 제안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유업계를 일방적으로 반사회적인 집단인양 호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협회보는 지금까지의 내부 고객중심에서 벗어나, 외부 고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편집방향의 변화를 통해 누구나 거부감이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석유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 있는 석유협회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안들에 대한 업계의 정확한 입장과 사실 전달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석유협회보를 여론선도층 (Opinion Leader) - 언론기관, 국회, 각종 NGO 등 - 에게 발송하여 석유업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석유협회보 창간 20주년을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석유협회보는 지금까지의 내부 고객 중심에서 벗어나, 외부 고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